|  |
| --- |
| **화재로 공장 몽땅 탄 비츠로셀, 어떻게 재건에 성공했나** |
| **작성일 2018-01-19** |
| **http://1234way.com/upload/20180118022041801162.jpg**  **잘 나가던 중소기업, 공장 전체 불 타 최악의 위기 맞다**  **작년 4월 21일은 리튬 1차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 ‘비츠로셀’ 장승국 대표에게 평생 잊지 못할 날이다. 화재로 충남 예산 공장이 일부도 아닌 전부 불에 타 버린 날이기 때문이다. 2016년에만 매출 910억 원, 영업이익만 49%에 달할 정도로 성과가 좋았고 최근 6년간 해외시장 매출 증가율은 연평균 24%에 달했다. 이 정도로 인정받고 있던 회사가 한 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린 것이다.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.**  **하지만 화재 10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, 비츠로셀은 빠른 재건으로 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. 불이 난 예산 공장보다 3배 큰 규모의 신공장이 올해 1월 완공될 예정이고, 현재는 3곳의 공장이 힘을 합쳐 화재 전 생산하던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. 놀라울 만큼 빠른 재건 속도다. 장 대표는 “위기에 직원을 먼저 생각한 것이 빠른 재기의 발판이 됐다”고 말한다.**  **위기에 사람 내보내지 않았다**  **그의 말마따나 비츠로셀의 빠른 재건 비결은 ‘사람’이다. 화재 이후 장 대표는 직원들에게 “정리해고는 없다”고 못 박아 말했다.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던 직원들을 위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줬다. 유급휴가 이후 250여 명의 직원들은 장 대표가 마련한 평택, 당진 공장에서 빠르게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. 실제로 비츠로셀에는 연구개발(R&D)에 특화된 전문 인력 비율이 많았는데, 장 대표는 이들 같은 숙련 인력을 놓치면 그땐 진짜 회사가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. 그는 “지금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재기를 위해 내린 결정 중 가장 잘한 일”이라 말한다. 실제로 그의 직원들은 비츠로셀 재건에 자신들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 인적·물적·심적으로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.**  **빠른 위기대처로 손해 최소화**  **아울러 최악의 위기에서 이성을 잃지 않고 빠르게 대처 방안을 찾은 것도 비츠로셀의 재건 비결이다. 화재 이후 단 이틀만에 장 대표는 설비 업체와 공장부지 계약 및 설비 투자 미팅을 마쳤다. 또 미국과 유럽 해외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“우리는 죽지 않는다. 꼭 돌아오겠다”는 확신을 심어줬다. 다년간 쌓아온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. 이 덕분에 실제 화재 이후에도 비츠로셀에서 이탈한 고객은 없었다. 장 대표는 “위기를 극복하고 4년 뒤 세계 1위 업체가 되기 위해 전진할 것”이란 자신감을 보였다.**    **이창원 기자** |